

| 해외해양사론 |



Jewel Muscat 호

중국 내 이순신에 대한 연구현황

-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

| 추이원평(崔云峰) | 中國 集美大學校 副教授

차 례

- I. 머리말
- II. 이순신 및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현황
- III.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
 1. 이순신
 2. 거북선
 3. 임진왜란
- IV. 맺음말

<국문요약>

1592년부터 1598년에 이르는 7년간 중국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은 강고한 항전을 통해 임진왜란의 최종승리를 취득하고 일본침략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였다. 명나라 萬曆時期에 진행된 '抗倭援朝戰爭'(임진왜란)은 萬曆年間에 진행된 3대 원정의 하나로서 명나라멸망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예로부터 임진왜란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여 왔으며 관련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한 연

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明清時期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임진왜란, 이순신, 거북선 관련 저서와 논문을 통계한 기초에서 중국학자들의 관련 주장과 관점을 연구 분석하고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임진왜란 명·조연합군 이순신 거북선 한반도

I. 머리말

1592년부터 1598년에 이르는 7년간 동북아시아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중국에서 ‘抗倭援朝戰爭’이라 부르고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이라며 부르며 일본에서는 ‘文祿·慶長之役’(분로쿠·게이초 역)이라 부르는 명·朝 연합군이 일본 침략군과 맞서 싸우는 대규모의 전쟁이 폭발한 것이다. 명·朝 연합군은 7년간의 강고한 항쟁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취득하였으며 한반도는 평화를 되찾았다. 7년간의 강고한 항쟁 과정에서 명나라지원군과 조선군에는 수많은 名將들이 배출되었는데 명나라의 李如松, 邢玠, 陳璘, 鄧子龍 및 조선의 이순신 등 명장들의 위업은 지금까지도 세간에 전해지고 있다. ‘抗倭援朝戰爭’은 명나라 萬曆年間에 진행한 3대 遠征의¹⁾ 하나로서 일부 학자들은 명나라 멸망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중국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출판된 도서와 발표된 연구논문에는 이순신과 거북선도 자주 거론된다.

1) ‘萬曆3大 遠征’이란 명나라 神宗皇帝 朱翊鈞의 萬曆年間(1573~1620年) 李如松이 몽고인 哱拜의 반란을 평정한 ‘寧夏之役’, 李如松과 麻貴 등의 지휘 하에 진행한 抗倭援朝戰爭, 李化龍이 苗族族長 楊應龍의 반란을 평정한 ‘播州之役’을 가리킨다.

중국에 산재하여 있는 이순신 및 ‘임진왜란’에 관한 문헌자료와 도서 및 연구논문은 그 수량이 상당히 방대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중국 각 지방 및 대학교 도서관,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그 수치를 정확히 통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본 논문의 통계수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중문사이버도서관인 超星사이버도서관과²⁾ 세계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는 사이버출판사인 中國知網에서³⁾ 자료를 검색하여 통계한 것이다. 상술한 사이버도서관과 사이버출판사가 중국내의 이순신과 거북선 및 ‘임진왜란’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누락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상술한 사이버도서관에서 검색된 자료의 진위를 판단하고 통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통계수치는 100%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내의 이순신과 거북선 및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현황을 다소나마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순신 및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현황

超星사이버도서관에서는 주로 도서자료를 검색하였는데 검색어는 ‘이순신’, ‘거북선’, ‘임진왜란’으로 설정하였다. 상술한 검색어로 검색하였을 경우 각각 상당히 많은 양의 도서자료가 검색되었다. 이 중에는 3개의 검색어에서 모두 검색된 도서, 주제가 아닌 출판사나 저자의 이름이 이순신 또는 거북선으로 되어 있는 도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제와 무관한 도서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최대한 정확한 통계를

2) <http://www.chaoxing.com>.

3) <http://www.cnki.net>.

위해서 3개 검색어로 검색된 자료를 각각 출력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중복되거나 주제에 무관한 도서들을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도서 출판연도별 현황(2013.6)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 1999	2000~ 2009	2010~ 현재	기타	합계
9	5	7	78	62	38	0	13	212

〈표 1〉을 관찰하여 보면 절대다수의 도서는 20세기 80년대에서 21세기 초에 출판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학자들도 자유로이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고 도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20세기 60, 70년대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인데 이시기 중국의 학자들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쫓겨나 농촌에서 노동개조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학술을 연구하고 책을 출판할 정력도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판된 도서가 적을 수밖에 없다. 20세기 50년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초창기인데 경제건설에 전 국민이 전력하던 시기로서 역시 여유시간과 정력이 없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 권의 도서도 검색되지 않았는데 이는 도서가 출판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검색도서 종류별 현황(2013.6)

문헌자료	일반도서	교과서	합계
9	152	51	212

〈표 2〉에서의 ‘문헌자료’는 明·淸 시기에 집필되고 출판된 도서를 말하며 ‘일반도서’는 中華民國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도서를 가리킨다. ‘교과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 및

교과서와 관련된 복습자료, 대학입시 관련자료 등이 포함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도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서도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中國知網에서는 주로 연구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검색어는 도서검색어와 마찬가지로 ‘이순신’, ‘거북선’, ‘임진왜란’으로 설정하였다. 검색결과 상당히 많은 연구논문이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는 3개의 검색어에서 모두 검색된 자료, 주제와 무관한 자료, 즉 저자이름이 이순신이거나 또는 타인의 이름이 이순신인 것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논문은 그 수가 상당히 많았다.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우선 3개 검색어로 검색된 연구논문을 출력한 후 상호 대조를 통해 중복된 연구논문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표 3> 연구논문 발표연도별 현황(2013.6)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현재	기타	합계
1	10	19	41	36	7	114

<표 3>에서의 기타는 20세기 60년대 이전을 가리킨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70년대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그 수량이 아주 적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후 경제건설에 주력하던 50년대와 ‘문화대혁명’이란 특수한 시기인 60~70년대에는 연구논문을 발표할 정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20세기 8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과 논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논문형식으로 표출되었다. 그 추세를 보면 발표된 논문수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3년 동안 이미 발표된 논문수가 36편에 달한다. 2020년에 이르면 발표된 논문수가 100여 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연구논문 분류별 현황(2013.6)

일반논문	학위논문	회의논문	신문기사	합계
77	27	5	5	114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학술회의논문과 신문기사는 그 수가 상당히 적으며, 절대다수가 일반논문과 학위논문이다. 이는 중국학술계에서도 ‘임진왜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Ⅲ.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

상술한 이순신, 거북선, 임진왜란 등 3개의 검색어에 따라 중국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출판된 도서들을 살펴보면 그 연구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이순신

(1) 이순신 생애에 대한 소개

이순신생애에 관해서는 嚴聖欽의 저서 『朝鮮民族英雄李舜臣』과 『艦載武器』에 게재된 楚水昂의 논문 「李舜臣朝鮮海軍的戰魂」에서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에 아버지 李貞과 어머니 草溪 卞氏의 셋째 아들로 漢城府 乾川洞에서 태어났으며 字는 汝諧이고 號는 德水이다.⁴⁾ 그의 아버지는 네 아들들이 모두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4명의 중국고대 聖人인 伏羲, 唐堯, 虞舜, 夏禹의

이름을 본 따 각각 義臣, 姚臣, 舜臣, 禹臣으로 이름을 지었다.⁵⁾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순시도 11세 때부터 형들을 따라 서당에서 한문을 익혔지만 말을 타고 활쏘기를 더 좋아했다.⁶⁾

1566년 22세 때부터 정식으로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였는데 18반 무예 외에도 ‘孫子兵法’, ‘吳起兵法’ 등 중국의 유명한 병서들을 숙독하였다. 31세 때 무과에 급제하였지만 센 고집으로 인해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십여 년간 하급무관으로 지내다가 1591년 46세 때 소꿉친구인 좌의정 柳成龍의 알선으로 全羅左道水軍 節度使로 승진하여 전라좌도의 수군을 통솔하게 되었다.⁷⁾ 임진왜란시기 그는 수적으로 열세한 조선수군을 통솔하여 항전초기 玉浦海戰, 永登浦海戰, 赤珍浦海戰 등 해전을 통해 44척의 일본군 함선을 격파하고 완전승리를 이룩함으로써 陸戰의 패배로 인해 조선왕조상하에 휩싸인 패전의 분위기를 씻어내고 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주었다.⁸⁾ 그 후 진행된 제2단계의 해전에서는 泗川浦海戰, 唐浦海戰, 唐項浦海戰을 통해 일본군의 함선 74척을 격파하고 수 천 명의 적군을 사살함으로써 일본군의 전라도침입을 막고 ‘水陸竝進’의 침략계획을 분쇄하였다. 또한 제2단계의 해전을 통해 조선군민들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조선수군은 해전의 主動權과 남해의 制海權을 장악하였다.⁹⁾ 1592년 6월부터 진행된 제3단계와 제4단계 해전에서는 閑山島海戰, 安骨浦海戰, 釜山浦海戰 등 해전을 통해 일본군의 전함 200여 척을 격파하고 수 천 명의 적군을 사살함으로써 일본군의 침략기염을 꺾었으며 조선수군의 위력을 과시하고 군민들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일층 확고히 하였다.

4) 嚴聖欽(1987), 『朝鮮民族英雄李舜臣』, 商務印書館, p.1.

5) 楚水昂(2010), 「李舜臣朝鮮海軍的戰魂」, 『艦載武器』, 第2期, p.78.

6) 嚴聖欽(1987), 『朝鮮民族英雄李舜臣』, 商務印書館, p.1.

7) 楚水昂(2010), 「李舜臣朝鮮海軍的戰魂」, 『艦載武器』, 第2期, p.78.

8) 嚴聖欽(1987), 『朝鮮民族英雄李舜臣』, 商務印書館, p.18.

9) 嚴聖欽(1987), 『朝鮮民族英雄李舜臣』, 商務印書館, pp.21-22.

그러나 1597년 2월 26일 이순신은 元均의 모함과 이간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되었다. 1597년 8월 3일 복직된 이순신은 9월 16일 鳴梁海戰에서 12척의 전함과 백여 명의 수군을 통솔하여 330여 척의 적함과 2만 여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30여 척의 적함을 격파하고 4천 여 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대첩을 취득하였다. 鳴梁海戰은 또 한 번 일본침략군의 기염을 꺾고 '수륙병진' 계획을 분쇄하였으며 내륙에 침입한 일본침략군의 철수를 가속화시켰다.¹⁰⁾ 1598년 11월 19일에 진행된 일본침략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마지막 해전인 露梁海戰에서도 대첩을 취득하였지만 이순신과 명나라의 鄧子龍은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순신은 한민족의 위업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바쳤다.

전쟁이 계속된 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604년에 이순신을 선무(宣武) 1등공신과 덕풍부원군(德豐府院君)으로 책봉하고 좌의정으로 추증하였으며, 1793년에는 다시 영의정으로 추증하였다.¹¹⁾

(2) 임진왜란 시 이순신의 역할

중국학자들은 임진왜란시기 이순신의 역할을 상당히 높이 평가 하고 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의 부산포 침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조선육군은 연이은 참패를 당했으며 개전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선후로 한성과 평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6월 22일 압록강변의 義州로 피신하였으며 조선은 멸망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¹²⁾

10) 嚴圣欽(1987), 『朝鮮民族英雄李舜臣』, 商務印書館, p.23.

11) 李建立·张海濱(1995), 『韩国崛起之谜』, 解放军文艺出版社, p.34.

12) 杨通方(2001), 「明朝與朝鮮的壬辰卫国战争」, 『当代韩国』, 秋季號, p.68.

일본침략군은 육지에서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지만 일본수군은 백전백패를 하고 있었다. 1591년 2월 46세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한 이순신이 전라좌수영 수군을 통솔하여 해전에서 백전백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철갑선—거북선을 건조하고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조선수군을 강철수군으로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번의 해전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서 적군을 무찔렀는데 이는 병사들의 용기를 크게 북돋우어 일당백을 할 수 있게 하였다.¹³⁾ 이순신의 통솔 하에 조선수군은 옥포해전, 사천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수 많은 해전에서 일본군의 수 백 척의 전함과 수 천 명의 일본군을 사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조선수군의 연이은 승리는 일본군의 ‘水陸竝進’ 계획을 분쇄하였으며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아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려던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미몽을 깨뜨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육전의 참패로 인해 조선왕조상하에 휩싸인 왕조멸망의 분위기를 일소하였으며 군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으며 임진왜란의 승리기반을 마련하였다.¹⁴⁾ 따라서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민족은 충무공 이순신의 업적을 대대손손 기리고 있다.

(3) 이순신에 대한 평가

이순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다. 이순신은 소년시대부터 구국의 큰 뜻을 품고 무예를 연마하고 병서를 탐독하면서 병법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그가 임진왜란시기 해전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

13) 许晓光(1999), 『世界著名将帅录』, 河南人民出版社, p.35.

14) 延边历史研究所(1987), 『延边历史研究』第2辑, p.26.

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그는 때 차례의 해전에서 해역의 수문, 지세, 병력과 적군동태에 따라 부동한 전략전술을 사용하여 적을 소멸하였다. 郑励新 등이 공동으로 편집 출판한 『中外名将录(下)』에서는 이순신의 謀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소멸하였다. 1592년 5월 7일 이순신은 85척 전함을 통솔하여 옥포해역에서 40여 척의 일본군 전함을 격파하고 옥포대첩을 취득하였다.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이 통솔한 조선수군은 40여 척의 일본군함선을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군을 사살하였으며 300여 석의 軍糧과 대량의 무기를 획득하였다. 반면 조선수군은 옥포해전에서 단 한 명의 부상자만 속출되었는데 이는 이순신의 탁월한 지휘능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옥포대첩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래 조선군이 취득한 첫 번째 승리로서 조선군민의 항전투지를 북돋우고 항전승리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¹⁵⁾

② 임기응변과 지략으로 적을 소멸하였다. 1592년 5월 29일 이순신은 일본수군에 진일보로 되는 타격을 주기 위해 조선수군을 통솔하여 사천해역에 이르렀다. 예정해역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군이 이미 유리한 지대를 점령하고 있어 공격에 불리하자 이순신은 임기응변하여 '진격을 위해 퇴각'하는 전술로 바꿔 적함을 외항으로 유인하여 소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수군은 조선수군이 접전도 하지 않고 퇴각하자 겁먹은 줄 알고 전력추격을 개시하였다. 적함이 진공에 유리한 해역에 이르자 이순은 조선수군을 통솔하여 퇴각에서 공격으로 바꾸어 거북선을 선두로 적진에 돌입하여 중형무진으로 적함을 격파하였다. 격전결과 추격에 가담하였던 일본군전함이 모두 조선수군에 격파되거나 노획되었다. 그 후 이순신은 조선수군을 통솔하여 6월 2일의 당포해전에서 21척 적함

15) 郑励新·方十可·马合秋(1988), 『中外名将录(下)』, 解放军出版社, p.262.

을 격침하고, 6월 5일의 당항포해전에서 26척의 적함을 격침하였다.¹⁶⁾

③ 水文地理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량의 병력으로 승리를 취득하였다. 1597년 8월 3일 복직한 이순신은 비록 12척 전함과 백 여 명의 수군밖에 없었지만 명량해전에서 수문지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명량대첩을 취득하였다. 명량해협의 길이는 2km 정도이며 최대 폭은 400-500m 이고 최소 폭은 300m에 불과하다. 해협의 양측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매일 4차례의 조석이 생기는데 밀물 시 해수는 빠른 속도로 동에서 서로 흐르고 썰물 시에는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이순신은 이러한 수문지리를 이용하여 일본수군을 소멸하기로 결정하고 해역에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설치하였다. 9월 16일 2만 여명의 일본수군이 승선한 500여 척의 전함이 조선수군을 포위하였다. 이순신은 민간선박을 전함으로 위장하여 일본수군을 미혹시키는 동시에 전함을 파견하여 적군의 주력함을 공격하고 적군함대를 명량해협으로 유인하였다. 명량해협에 진입한 후 이순신이 통솔하는 12척의 전함은 500여 척의 일본전함을 상대로 격전을 벌려 적군의 기함을 포함한 3척의 적함을 격침함으로써 적군함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때 마침 썰물이 지면서 적함은 갯벌에 빠지거나 말뚝과 쇠사슬에 걸려 미동할 수 없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이순신은 조선수군을 통솔하여 전면공격을 개시해 30여 척의 적함을 격파하고 4,000여 명의 적군을 사살하였다. 명량대첩은 전라도, 충청도 연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3도 수군의 재조정을 위해 시간을 쟁취하였으며 명나라의 수륙원조군의 군사행동에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였다.¹⁷⁾

상술한 해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은 전략전술이 뛰어난 謀略家이고 인류역사상 가장 걸출한 군사가의 한 사람임에 손색이 없다. 그

16) 郑励新·方十可·马合秋(1988), 『中外名将录(下)』, 解放军出版社, pp.262-263.

17) 郑励新·方十可·马合秋(1988), 『中外名将录(下)』, 解放军出版社, p.265.

가 조선수군을 통솔하여 진행한 여러 차례의 해전은 세계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순신은 항전이 최후의 승리를 취득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며 명실상부한 한민족 영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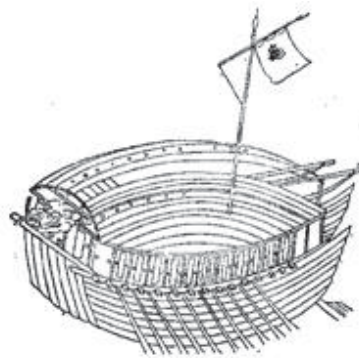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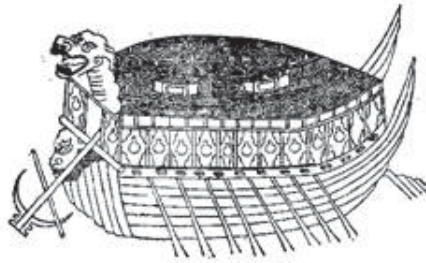
2. 거북선

임진왜란에 관련된 중국학자들의 대부분 저서나 연구논문에서 이순신을 거론할 때 그가 지휘한 여러 차례의 해전을 언급하고 해전을 언급할 때는 모두 거북선을 언급하는데 그 평가는 상당히 높다. 嚴聖欽의 『朝鮮民族英雄李舜臣』에서는 거북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거북선의 선장은 19미터가 넘으며 폭은 4미터가 넘다. 선체는 단단한 목재로 만들었으며 선체 위쪽에는 단단한 목재로 만든 덮개를 덮고 그 윗면에 철판을 덮는다. 철판위에는 十字 모양의 좁은 길을 내고 기타 부분은 칼과 송곳을 뿔뿔이 꽃는데 평시에는 거적을 덮어 놓는다. 적들과 조우했을 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적병이 거북선에 기어오르게 되면 대부분 질러죽게 된다. 거북선의 선수는 龍頭이고 선미는 거북의 꼬리처럼 생겼는데 그 형태는 마치 한 마리의 거북과 흡사하다. 龍頭的 길이는 4尺 3寸이고 폭은 3尺이다. 선체의 양측에는 각각 10개의 노를 설치하였는데 40명이 번갈아 가면서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인다. 龍頭와 선체 4면에는 수많은 총구와 포구를 뚫어 놓았다. 거북선에는 天字, 地字, 玄字, 黃字 등 여러 종류의 화포와 기타 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포와 총은 龍口 및 사면의 포구와 총구를 이용하여 사격할 수 있다. 龍口는 발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 또는 독가스를 내뿜어서 적군을 미혹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거북선의 방어력은 상당히

18) 潘光·費成康(1985), 『外国著名战役故事』, 少年兒童出版社, p.99.

탁월하다. 내부에는 24개의 선창이 있는데 크고 작은 대포 26문과 160여 명의 병사가 탑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무기와 탄약을 적재할 수 있다. 선체가 일반 전함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적군의 포탄에도 격파되지 않는다. 전투 시 거북선은 사면에서 발포하면서 적진으로 돌격하는데 진퇴가 민첩하고 나는 듯이 빠르다. 거북선은 선체가 거대하고 중심이 낮으며 많은 담수와 양식을 적재할 수 있어 장시간 동안 항해할 수 있다.”¹⁹⁾



중국학자들이 언급한 거북선

상술한 장점으로 볼 때 거북선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력이 강한 철갑전함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철갑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²⁰⁾

19) 嚴聖欽(1987), 『朝鮮民族英雄李舜臣』, 商務印書館, pp.14-16.

3. 임진왜란

중국학자들의 연구논문이나 저서는 대부분이 임진왜란에 관한 것인데 주로 임진왜란의 발발원인, 과정, 결과, 영향 및 명나라의 파병원인, 임진왜란시기의 明·朝 양국군대에 관련된 것이다. 근년에는 임진왜란시기의 의병운동, 강화담판 등과 관련된 기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1) 임진왜란의 발발원인

임진왜란의 발발원인에 관련해 중국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명나라, 조선 및 일본 등의 3개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閔學進은 석사학위논문 『抗倭援朝战争與朝中关系』에서 임진왜란의 발발원인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첫째, 명나라 국력의 약화는 일본의 야심을 자극하였다. 명나라 萬曆時期 당파싸움으로 정직한 대부분 문무 대신들이 배척당하고 관직에서 밀려남으로 하여 정치가 날로 부패해지고 국방력은 갈수록 쇠약해졌다. 이와 같은 명나라 정세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동북아를 주도할 수 있다는 豊臣秀吉의 야심을 자극하였으며 이러한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를 침공하였던 것이다.²¹⁾

둘째, 조선왕조의 국력쇠약은 豊臣秀吉의 야심을 가일층 자극하였다.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조시기의 조선왕조도 당파싸움으로 정치가 부패

20) 路宁·刘庆(2000), 『世界战争故事丛书·弓马篇·绞杀与征战』, 浙江少年儿童出版社, p.258.

21) 閔學進(2004), 『抗倭援朝战争與朝中关系』, 延边大学校硕士学位论文, p.3.

해지고 국력이 쇠약해졌으며, 변방방위가 느슨해지고 인심이 해이해졌다. 결과 일본군의 전격전에 조선육군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²²⁾

셋째, 동북아를 제패하려는 야심을 실현하고 자국 상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임진왜란을 발동하였다. 1590년 豊臣秀吉은 일본을 통일한 후 대외전쟁을 통해 통치세력을 단합하고 타국의 영토에 대한 이들의 점유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한 대외전쟁을 통한 일본상인들의 재부약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아가서 중국대륙을 점령하여 대제국을 건립하려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1592년 조선침공을 발동하였다.²³⁾

(2) 명나라의 파병원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명나라는 선조의 요청에 의해 지원군을 파견하였으며 明·朝 연합군은 1598년 11월에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최종승리를 취득하였다. 명나라의 파병원인과 관련해 중국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王非는 2005년에 발표한 석사학위논문 『明代援朝御倭战争與朝鮮的‘再造之恩’意识』에서 아래와 같이 파병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첫째, 파병의 주된 요인은 明·朝 양국 간의 끈끈한 宗藩關係이다. 조선왕조는 건국초기부터 事大主義를 국책으로 정하고 명나라에 대한 事大原則을 굳건히 지키면서 명나라와 안정적인 宗藩關係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관계는 비록 불평등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선왕조는 중화문화권 내에서 가장 우대받는 일원으로 되었으며, 종주국인 명나라는 조선왕조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22) 閔學進(2004), 『抗倭援朝战争與朝中关系』, 延边大学校碩士學位論文, p.3.

23) 閔學進(2004), 『抗倭援朝战争與朝中关系』, 延边大学校碩士學位論文, p.3.

조선왕조가 일본의 침공을 받자 명나라는 선뜻 파병하였던 것이다.²⁴⁾

둘째, 동북아정치체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서이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에 위치하여 있는 고대 일본도 중화문화권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대륙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관계로 경제, 문화교류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주로 한반도를 통해 중화문명을 받아들였다. 섬나라 일본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자원결핍을 극복하고 영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대외침략을 감행하여 왔다. 예컨대 명나라초기부터 수많은 왜적들이 중국동남지역을 약탈함으로써 명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으며, 1592년에는 한반도를 침공하여 중국을 중주국으로 하는 동북아정치체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명나라정부는 자국의 중주국지위를 확고히 하고 '朝貢冊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하였던 것이다.²⁵⁾

셋째, 문화동질감도 파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왕조는 건국초기부터 시종일관하게 자신을 중화문화권의 일원으로 확정하고 중화문화를 존중하고 본받기 위해 힘썼다. 조선왕조는 명나라 유가의 예의범절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시하고 조공정책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였다. 명나라의 衣冠制度를 본받아 문무백관들의 朝服을 만들었으며, 또한 四書五經을 위주로 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명나라로부터 대량의 한문서적을 들여왔다. 즉 조선왕조는 중화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명나라는 조선왕조를 '예의 지국'이라고 극찬하였다. 明·朝 간의 이와 같은 문화동질감은 명나라 파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⁶⁾

24) 王非(2005), 『明代援朝御倭战争與朝鮮的'再造之恩'意识』, 延邊大學校碩士學位論文, pp.11-12.

25) 王非(2005), 『明代援朝御倭战争與朝鮮的'再造之恩'意识』, 延邊大學校碩士學位論文, pp.13-15.

26) 王非(2005), 『明代援朝御倭战争與朝鮮的'再造之恩'意识』, 延邊大學校碩士學位論文,

(3) 임진왜란의 경과 및 결과

중국학자들은 명나라의 항일원조전쟁을 대체적으로 임진왜란단계, 강화담판단계, 정유재란단계 등 3개 단계로 나누고 있다. 杨通方은 『当代韩国』 2001年 제3권에 발표한 논문 「明朝與朝鮮的壬辰卫国战争」에서 임진왜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임진왜란단계

조선은 당파싸움으로 인해 정치가 부패해지고 국력이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변방방위가 해이해져 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을 침공하자 조선군은 대항도 못해보고 참패를 당했다. 그 후의 잇단 참패로 하여 5월에는 한성, 6월에는 평양을 잃었으며 선조는 대신들과 함께 황급히 義州로 피난하였다.²⁷⁾ 국토의 대부분이 일본군에 점령당한 조선왕조는 멸망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순신은 조선수군을 통솔하여 해전에서 백전백승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수륙병진'계획을 분쇄하였으며 조선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1592년 6월 명나라는 선조의 요청에 의해 參將 戴朝弁, 遊擊將軍 史儒가 통솔하는 선봉대를 의주에 파견한데 이어 遼東 副總兵 祖承訓이 통솔하는 5,000명 병력과 副總兵 查大受, 遊擊將軍 葛逢夏가 통솔하는 2,000명 병력을 연이어 의주로 파견하였다. 12월에는 명나라 提督 李如松이 40,000명의 대군을 통솔하여 한반도에 진입하였다. 1593년 1월 李如松의 지휘 하에 明·朝 연합군은 평양과 개성을 잇달아 수복하였으며,²⁸⁾ 2월에는 전라도 순찰사 權慄이 4,000명의 조선군을 지휘하여

pp.16-18.

27) 杨通方(2001), 「明朝與朝鮮的壬辰卫国战争」, 『当代韩国』, 第3期, p.68.

28) 杨通方(2001), 「明朝與朝鮮的壬辰卫国战争」, 『当代韩国』, 第3期, p.68.

행주대첩을 취득하였다. 明·朝 연합군의 거대한 군사압력 하에 일본군은 4월에 한성에서 철수하고 8월에는 한반도 남부로 전면 철수하였다. 明·朝 연합군이 한성을 수복한 후 9월에 이르러 명군도 철수를 시작하여 1594년 1월에 대부분이 명나라로 철수하였다.²⁹⁾ 이로써 제1단계 임진왜란이 결속되었다.

② 강화담판단계

한반도침공 후 일본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에 강화담판을 제기하고 항복하도록 협박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1593년 초 明·朝 연합군이 한성을 포위하였을 때 일본군은 다시 강화담판을 제의하고 4월 초에 강화문서를 한성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아군 수군지휘부에 전달하였다. 明·朝 측은 일본이 한성에서 철수하고 왕자를 돌려보내야 만 강화담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강화담판 중 일본군은 명나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6월 28일 진주성에 침입하여 조선군민 60,000여 명을 살상하는 참사를 저질렀다. 명나라는 진주참사를 저지른 일본군이 담판성의를 부족하다고 여겨 일본정부의 담판사신을 접견하지 않음으로 하여 협상은 한 때 중단되기도 하였다. 협상이 재개된 후 명나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담판조건을 제기하였다. 첫째, 豊臣秀吉을 일본국왕으로 책봉하고 중일간의 조공무역은 재개하지 않는다. 둘째, 단 한명의 일본군인도 부산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일본은 영원히 조선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중일간의 조공무역을 간절히 원했지만 명나라에 거부당하자 다시 한반도를 침공함으로써 강화담판은 중단되고 말았다.³⁰⁾

29) 杨通方(2001), 「明朝與朝鮮的壬辰卫国战争」, 『当代韩国』, 第3期, p.70.

30) 杨通方(2001), 「明朝與朝鮮的壬辰卫国战争」, 『当代韩国』, 第3期, p.70.

③ 정유재란단계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나라는 兵部尙書 邢玠로 하여금 軍事를 총괄하게 하고 都察院 右僉都御使 楊鎬가 조선 군사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동시에 육군 總兵 麻貴, 劉綎, 董一元, 수군 總兵 陳璘을 잇달아 조선으로 파견하였다.³¹⁾ 1597년 9월 明·朝 연합군은 稷山大捷을 취득한 여세를 몰아 일본군을 울산, 사천일대로 몰아냈다. 明·朝 연합군이 육지에서 승승장구할 때 조선수군도 이순신의 통솔 하에 명량대첩을 취득하여 다시 제해권을 장악하였다.³²⁾ 明·朝 연합군의 강대한 군사압력 하에 일본군은 豊臣秀吉의 유언에 따라 1598년 11월 전함을 이용해 일본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陳璘과 이순신은 이 기회를 이용해 明·朝 연합수군을 통솔하여 노량대첩을 취득하였다. 일본 잔여부대의 철수가 끝나면서 제3단계의 정유재란이 결속되고 7년에 거친 임진왜란도 明·朝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제1단계에서 明·朝 연합군은 43,000여 명의 일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공할 당시에는 96,000여 명에 달했지만 한성에서 철수할 때는 겨우 53,000여 명에 불과하여 감원이 45%에 달했다. 이는 明·朝 연합군이 이룩한 휘황한 승리를 의미한다. 제2단계의 정유재란 시 明·朝 연합군은 처음부터 주동권을 장악하고 공세를 펼쳤으며 일본군은 수세에 몰려 패주하는 상황이었다. 비록 明·朝 연합군이 일부 전투에서 패했었지만 7년간의 항일전쟁은 明·朝의 승리로 끝났다.³³⁾

일본이 발동한 임진왜란은 침략전쟁이었던 관계로 자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막대한 전쟁물자의 소모는 자원이 결핍한 일본으

31) 物通方(2001), 「明朝與朝鮮的王辰卫国战争」, 『当代韩国』, 第3期, p.71.

32) 物通方(2001), 「明朝與朝鮮的王辰卫国战争」, 『当代韩国』, 第3期, p.72.

33) 閩学进(2004), 『抗倭援朝战争與朝中关系』, 延边大学校硕士学位论文, p.20.

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명나라의 파병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며 明·朝 군민의 결사적인 저항도 승리를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⁴⁾

(4) 임진왜란시기의 明·朝 군대관계

① 상호 지원 및 군사기술의 상호 교류

閔學進는 석사학위논문 『抗倭援朝戰爭與朝中關係』에서 明·朝 양국 군대는 연합작전을 실시할 때 서로 지원하고 협동하였으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기술을 교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李如松이 명군을 통솔하여 평양근처에 도착하였을 때 柳成龍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으며 또한 공격목표를 알려줌으로써 평양전투가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었다. 평양전투가 시작된 후에는 駐軍在都元帥 金命元, 巡邊使 李錡, 防禦使 金應瑞 등 1만 여명의 조선군이 명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일본군이 패하여 평양에서 철수할 때 조선 의병들은 명군과 함께 추격전을 벌여 수많은 적군을 소멸하였다. 정유재란시기의 櫻山戰鬪, 金鳥坪戰鬪에서도 明·朝 군대는 협력하여 일본군의 북상시도를 분쇄하였다. 특히 울산전투에서는 忠淸兵使 李時言, 慶尙右兵使 成無門, 慶尙左兵使 鄭起龍 등 12,000여 명의 조선군이 명군과 함께 싸웠으며 최후 반격단계에서 明·朝 군대간의 협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동부군단에는 명군 24,000여명 외에도 강원도와 경상좌도 金應瑞部 5,500여명의 조선군이 있었으며, 중부군단에는 명군 13,500여명과 경기도, 황해도, 경상우도의 2,300여명 조선군이 있었고,

34) 姜龍范·劉子敏(1999), 『明代中朝關係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pp.437-440.

서부군단에는 명군 13,600여명과 權栗, 李時言, 李元岳, 元愼 등이 통솔하는 조선군 10,000여명이 있었다. 이외에도 수군군단에는 陳璘이 통솔하는 중국군 5,000여명과 이순신이 통솔하는 조선수군 7,300여명이 있었다.³⁵⁾

또한 明·朝 군대는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기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1593년 조선정부는 李如松의 건의를 받아들여 訓練都監을 신설하고 戚繼光의 『紀效新書』에 따라 군대를 훈련하고 옛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조선군은 명군으로부터 검술, 성곽구축법, 화기제조법, 화약제조법 등을 배워 군사력을 강화하였다.³⁶⁾

② 명군이 조선에 미친 악영향

王非는 석사학위논문 『明代援朝御倭战争與朝鮮的‘再造之恩’意识』에서 명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후 조선군민과의 협력을 통해 戰勢를 돌려세우고 조선왕조의 통치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일부 명군의 부패행위는 조선군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명군 내 북방병사들은 군기가 문란하여 조선백성에 상당히 많은 해를 끼쳤다. 1598년 울산전투에서 패하여 철수하는 도중 일부 명나라 북방군은 도처에서 말뽕을 일으키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한 관계로 악명이 자자하였는데 이는 명군의 명예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다주었다. 군량을 발급할 때 명나라 남방군은 질서가 정연하였지만 북방군은 질서가 혼잡하고 군기가 문란하여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³⁷⁾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명군의 한반도주둔도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명군의 군량 공급은 조선백성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예컨대

35) 陶学进(2004), 『抗倭援朝战争與朝中关系』, 延边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25-26.

36) 陶学进(2004), 『抗倭援朝战争與朝中关系』, 延边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26-27.

37) 王非(2005), 『明代援朝御倭战争與朝鮮的‘再造之恩’意识』, 延边大学校硕士学位论文, p.28.

강화담판시기 명군이 한성지역에 주둔하고 있을 때 선박과 축력, 인력의 결핍으로 군량과 사료공급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군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의병을 동원하여 군량과 사료운수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선의병의 부담을 가중화시켰으며 병력저하를 초래시켰다. 정유재란시기 명군병력의 끊임없는 증가로 인해 군량 공급문제는 더욱 불거졌으며, 조선조정은 끊임없이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집집마다 양식을 징수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백성은 더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으며 원성은 더욱 자자해졌다. 명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백성들은 명군에 군량을 공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군마사양과 양식 운송에 종사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지를 겨를이 없어 대부분 경작지가 황폐해졌으며 이는 이후의 농업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⁸⁾

(5) 임진왜란의 영향

顔廷宏의 석사학위논문 『壬辰战争影响论述』과 王亮의 석사학위논문 『壬辰倭亂與明人抗日援朝』 및 金烘培, 黄文日이 『东疆学刊』 2007년 제4권에 발표한 논문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에서는 임진왜란이 중국, 한국, 일본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명나라에 미친 영향

명나라는 선조의 요청으로 한반도에 파병하여 조선군민과 함께 일본군을 격파하고 임진왜란의 승리를 취득하였지만 자국에 미친 악영향은 상당히 컸다.

첫째, 전쟁의 막대한 소모로 국고가 바닥나고 백성들의 부담이 갈수

38) 王非(2005), 『明代援朝御倭战争與朝鮮的'再造之恩'意识』, 延边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39-40.

록 증가되어 국가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취득하기 위해 명나라는 끊임없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전쟁에서 전사한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소모한 전쟁비용도 수백만 냥에 달하였다. 이는 명나라의 막대한 인력, 재력과 물력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정권유지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통치자들은 바닥난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이로 하여 계급모순이 첨예해지고 각 지역에서는 폭동이 속출하여 명나라정권을 가일층 와해시켰다.³⁹⁾

둘째, 중국동북의 여진족이 날로 강대해져 명나라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중국동북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주력 부대가 한반도로 진입하면서 동북지역에 대한 명나라의 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중국동북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족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세력을 꾸준히 강화하였다. 예컨대 怒尔哈赤은 임진왜란시기에 대부분의 여진족부족을 통일하여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명나라 일부 대신들이 여진족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였지만 재력과 병력의 제약에 받아 명나라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결속된 후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명나라의 통제는 갈수록 약화되었으며 결국 50년 후 여진족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다.⁴⁰⁾

39) 颜廷宏(2010), 『壬辰战争影响论述』, 曲阜师范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3-6.
王亮(2011), 『壬辰倭乱與明人抗日援朝』, 内蒙古师范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44-47.
金烘培·黄文日(2007),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 『东疆学刊』, 第4期, p.36.

40) 颜廷宏(2010), 『壬辰战争影响论述』, 曲阜师范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7-9.
王亮(2011), 『壬辰倭乱與明人抗日援朝』, 内蒙古师范大学校硕士学位论文, p.43.
金烘培·黄文日(2007),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 『东疆学刊』, 第4期, pp.36-37.

② 조선왕조에 미친 영향

첫째, 사회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전쟁기간 일본군은 점령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살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부지기수의 조선백성들이 참살되었다. 임진왜란이 계속된 후 이조왕조의 인구는 1,400만에서 1,200만으로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량의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농업과 수공업은 정체되고 말았다. 조선왕조통치자들은 바닥난 국고를 보충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을 늘이고 토지를 강점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진일보 가중화시켰다.⁴¹⁾

둘째, 통치계급의 내부싸움을 가속화시켰다. 임진왜란 전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당파싸움을 전쟁결속 후 더욱 치열해졌으며 이는 정권통치를 약화시켰다. 예컨대 왕위승계문제로 인해 당파싸움이 더욱 불거졌는데 이는 궁전정변의 도화선으로 되었다.⁴²⁾

셋째, 군사력의 약화로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 임진왜란 전부터 이조군대의 부패현상은 상당히 심각하였으며 병사내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임진왜란을 겪은 후 조선군의 수량은 70%나 급격히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장들의 전사로 조선왕조의 군사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임진왜란 후 조선군은 인원을 보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부패해지고 군기가 문란해져 군사력이 더욱 약화되었는데 이는 외환에 대처하는 능력을 엄중히 저하시켰다.⁴³⁾

41) 颜廷宏(2010), 『壬辰战争影响论述』, 曲阜师范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10-13.

金烘培·黄文日(2007),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 『东疆学刊』, 第4期, p.37.

42) 颜廷宏(2010), 『壬辰战争影响论述』, 曲阜师范大学校硕士论文, pp.13-14.

金烘培·黄文日(2007),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 『东疆学刊』, 第4期, p.37.

43) 颜廷宏(2010), 『壬辰战争影响论述』, 曲阜师范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15-16.

③ 일본에 미친 영향

전쟁의 원흉인 일본은 자신의 침략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침략전쟁에서 일본의 수많은 병사가 타국에서 생명을 잃었으며 일본백성들에게 가져다준 막대한 부담으로 인해 국내의 반전운동이 초래되었다. 또한 전쟁결과 豊臣氏의 세력이 약화되고 徳川幕府(도쿠가와 바쿠후) 정권으로 교체되고 말았다.⁴⁴⁾

(6) 임진왜란시기의 조선의병운동

李钟九는 2010년에 발표한 박사학위논문 『壬辰倭乱时期全罗道社会状况與义兵运动研究』에서 임진왜란시기의 조선의병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그는 전라도지역의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논술하였는데 의병운동의 주요 통솔자의 성격특징에 근거하여 의병운동의 발발요인, 의병의 조직형태 및 전투특징, 전략전술을 논술하였다. 또한 부동한 시기의 의병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특징을 기초로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전라도 의병의 활동이 임진왜란시기와 전쟁후의 전라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李钟九의 이와 같은 연구는 중국학계에서 가히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金烘培·黄文日(2007),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 『东疆学刊』, 第4期, p.37.

44) 颜廷宏(2010), 『壬辰战争影响论述』, 曲阜师范大学校硕士学位论文, pp.17-23.

金烘培·黄文日(2007), 「万历朝鲜役及其对东亚政治格局的影响」, 『东疆学刊』, 第4期, p.38.

45) 李钟九(2010), 『壬辰倭乱时期全罗道社会状况與义兵运动研究』, 延边大学校博士学位论文.

IV. 맺음말

‘抗倭援朝戰爭’은 ‘萬曆 3大 遠征’의 하나로서 명나라정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전쟁인 관계로 예로부터 많은 중국학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분분히 저서를 출판하고 논문을 발표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明·淸 시기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서와 논문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 이전의 수십 년간 중국대륙은 전쟁 난을 겪고 있던 관계로 발표된 논문수가 상당히 적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후 20세기 50년대는 경제건설에 주력했던 관계로, 60-70년대는 문화대혁명이란 특수한 시기였던 관계로 학문연구에 몰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발표된 저서나 논문수도 많지 않다. 그러나 80년대 개혁개방이 실시되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해방되고 경제가 부유해진 관계로 임진왜란에 관련된 저서와 논문수가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논문주제도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관련 저서와 논문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된 석, 박사학위논문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 발표될 관련 논문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학자들의 임진왜란에 관련된 저서나 논문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첫째, 임진왜란의 발발원인, 경과, 결말 및 평가.
- 둘째, 명나라정부의 파병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 셋째, 임진왜란이 한국, 중국, 일본에 미친 영향.
- 넷째, 임진왜란시기 明軍과 조선군의 협력관계와 명군이 미친 악영향
- 다섯째, 임진왜란시기 전라남도의 의병활동

비록 임진왜란에 관련된 많은 저서와 논문이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첫째,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순신의 일생을 기술한 저서는 다만 嚴聖欽이 집필한 저서 『朝鮮民族英雄李舜臣』뿐이며 이것도 40여 쪽 정도에 불과하다. 이순신에 관한 연구논문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순신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거북선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을 서술할 때 이순신이 거북선을 건조하여 해전에서 일본수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였으며 제해권을 장악하고 최종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간략하게 논술하고 있을 뿐이다. 즉 거북선의 형태와 대체적인 크기만을 서술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선형, 크기, 건조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셋째, 임진왜란의 발발원인, 경과, 결과를 서술하고 평가할 때 주로 중국 측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명군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조선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며, 또한 명군이 조선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넷째, 통계를 보았을 때 이순신과 거북선에 관련된 교과서나 복습자료는 그 양이 상당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명나라시기의 대외교류 또는 세계통사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할 때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이고, 복습자료는 대개 객관식과 같은 시험문제에서 선택문제로 출제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변하고 임진왜란, 특히 한민족 영웅인 이순신과 그가 건조한 거북선을 중국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한중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순신 또는 거북선에 관련

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중국에서 중문으로 편집된 저서를 출판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이미 출판 발행된 이순신 또는 거북선에 관련된 저서를 중국에서 중문으로 번역 출판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 <http://www.chaoxing.com>
- <http://www.cnki.net>
- 嚴圣欽(1987), 『朝鮮民族英雄李舜臣』(北京), 商務印書館.
- 楚水昂(2010), 「李舜臣朝鮮海軍的戰魂」, 『艦載武器』(鄭州), 第2期.
- 李建立·張海濱(1995), 『韓國崛起之謎』(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 楊通方(2001), 「明朝與朝鮮的壬辰衛國戰爭」, 『當代韓國』(北京), 秋季號.
- 許曉光(1999), 『世界著名將帥錄』(鄭州), 河南人民出版社.
- 延邊歷史研究所(1987), 『延邊歷史研究』(延吉), 第2輯.
- 鄭勵新·方十可·馬合秋(1988), 『中外名將錄(下)』(北京), 解放軍出版社.
- 潘光·費成康(1985), 『外國著名戰役故事』(上海), 少年兒童出版社.
- 路寧·劉慶(2000), 『世界戰爭故事叢書·弓馬篇·絞殺與征戰』(杭州), 浙江少年兒童出版社.
- 閩學進(2004), 『抗倭援朝戰爭與朝中關係』(延吉), 延邊大學校碩士學位論文.
- 王非(2005), 『明代援朝御倭戰爭與朝鮮的再造之恩意識』(延吉), 延邊大學校碩士學位論文.
- 姜龍范·劉子敏(1999), 『明代中朝關係史』(哈爾濱),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王亮(2011), 『壬辰倭亂與明人抗日援朝』(呼和浩特), 內蒙古師範大學校碩士學位論文.
- 顏廷宏(2010), 『壬辰戰爭影響論述』(曲阜), 曲阜師範大學校碩士學位論文.
- 金烘培·黃文日(2007), 「萬曆朝鮮役及其對東亞政治格局的影響」, 『東疆學刊』(延吉), 第4期.
- 李鍾九(2010), 『壬辰倭亂時期全羅道社會狀況與義兵運動研究』(延吉), 延邊大學校博士學位論文.

〈Abstract〉

Current Situation of Research on Yi Sun-sin
in China Academic Community
Focusing o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Korea

CUI Yunfeng
Associate professor of Jimei University, China

From 1592 to 1598, the combined Ming and Joseon armies won the final victory through arduous resistance 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driving the Japanese invaders out and restore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The Anti Japanese to support Korea War during the Wanli Era of the Ming Dynast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as one of the three expeditions during the Wanli Period in the Ming Dynasty, and it was one of the main causes that led to the toppling of the Ming Dynasty. Therefore, many scholars have made a lot of research o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a result, a growing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related to it have been published. At the same time, research papers on the Turtle Ship have also come out. This thesis first probes into the statistics of all the books and articles on the Turtle Ship and Yi Sun-sin published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now, on the basis of which this thesis researches and analyses the related opinions and propositions of the Chinese scholars and the shortcomings in the research are also pointed out.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 The Combined Ming and Joseon Armies ; Yi Sun-sin ; turtle ships; The Korean Peninsula